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경,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경,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병율(이영숙) 김재인(이강우)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박부웅(최귀남) 박순웅(이승예)
박순자(이동수) 방복순 윤 숙 이상희 이운옥 이태일(송백현)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지옥본
최기훈(정계숙) 최성현 최정규(김미영) 하세련 허봉선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안나 박순웅(이승예) 방복순 손명화(유호근) 윤 숙 이태일(송백현) 정기성(심순옥)
최기훈(정계숙) 하세련 허봉선 홍한표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강영애 김경엽(손정아) 김병율(이영숙) 김춘화 김태이(송대향) 방복순 서재희(김현구)
송다해 송순량 송형기(김현숙) 염영분(천세력) 이미자 이태일(송백현) 이효숙 전순봉
최기훈(정계숙) 최성현 황수련 무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아이린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승예 이아론 임윤정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최효자 하세련
홍은민 홍준민 무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0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마가복음 3장 7절 ~ 19절		
월요일	마가복음 3장 20절 ~ 35절	목요일	마가복음 4장 30절 ~ 41절
화요일	마가복음 4장 1절 ~ 20절	금요일	마가복음 5장 1절 ~ 20절
수요일	마가복음 4장 21절 ~ 29절	토요일	마가복음 5장 21절 ~ 4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윤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 양 대	지 휘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시은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이수경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원위원회.		

2023. 12. 31.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음기 41장 1~11절

하나님은 음에게 피조물의 으뜸이 사람이 아니라 배혜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동물 리워야단을 등장시키사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음에게,
1.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 리워야단은 배혜뭇과는 달리 고대 근동에서는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 동물로도 등장합니다.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학에서 이 리워야단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혼돈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고, 혼돈을 야기하는 세력이나 문제, 혹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기지 못할 상태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분명 음은 이러한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없고, 리워야단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으며, 리워야단을 보기만 해도 싸울 의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에게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괴수를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가져오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밤과 낮, 어둠과 빛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시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돈의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심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리워야단과 같은 괴수를 제압하시듯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직,
2.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하여 마치 사람이 기도 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다의 동물인 리워야단조차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기고 조종하려 한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음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64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때론 음과 같이 우리 앞에 매여 있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음과 같은 모습으로 투정했고, 불평하며, 기도가 응답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긍휼, 즉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풀무에 들어가야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혹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되어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교회 주제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짐을 알아 더욱 성령의 충만을 받고, 소망 없는 자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도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50 - 01

2024. 01. 0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신년감사주일

[1부] 오전 7시 사화: 최 기 훈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550(통248)장 다 같 이
(Praise)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대 표 기 도 [1부]김종진집사
(Prayer) [2부]임만순장로
[3부]최기훈장로

성 경 봉 독 율기 41장 12~34절[구약p.801]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광수]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위상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1,2,3부]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430(통456)장 다 같 이
(Praise)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연합초원/목장예배

오후 3시

< 찬 양 >

초원/목장 모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같 이

성 경 봉 독 로마서 11장 33~36절[신약p255]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렘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1:3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2024년 교회 주제]
2024년도 교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롬15:13)입니다.

- [초원/목장연합예배]
오늘(7일) 찬양예배는 초원/목장연합예배로 진행됩니다. 3시에 본당에서 모이신 후 초원별로 이동하여 예배를 하오니 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헌금작정]
다음 주일(14일) 1, 2, 3부 예배 시 2024년도 “선교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 [다니엘 기도회]
21일(주일)까지 1/4분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
청년부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를 13일(토)에 가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소: 상길포항, 왜목마을 해수욕장
- 교회 출발: 오전 9시 30분 / 회비: 10,000원

- [안수집사 모임]
다음 주일(14일) 3부 예배 후 안수집사 모임이 로렘나무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단·차·중식]
2024년 성단·차·중식을 사랑으로 섬길 분들은 신청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행사 안내]

1월	1~21일	다니엘 기도회
	7일(주일)	신년감사예배/ 초원/목장연합예배
	14일(주일)	선교헌금작정/ 안수집사 모임
	21일(주일)	공동의회/ 제직헌신예배
	28일(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권사회총회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초원/목장 연합예배 3시/ 본당	* 여전도회월례회 3부 예배 후/ 본당 * 안수집사 모임 3부 예배 후/ 로렘나무

◎ 환영합니다

- 23~16 조영재 집사(소망1 고척2/베드로방전도회) 추재호 집사 인도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담임목사			임음	등촌 부천 목동,일산	바울 남전도회
다음주	장성자 권사	장성자 권사	강영성 장로 신화순 권사	소망1	고척1 고척2	요한 남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1주(07일)	최기훈 장로	김종진 집사	임만순 장로	최기훈 장로	초원목장연합예배	
2주(14일)	강영성 장로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강영성 장로	윤영준 장로	홍정훈 집사
3주(21일)	임만순 장로	방원식 집사	최성현 장로	임만순 장로	담임 목사님	최기훈 장로
4주(29일)	박권제 장로	채만기 집사	윤영준 장로	박권제 장로	담임목사님	김종진 집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